



이건희 컬렉션을 만나는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전이 오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건희 컬렉션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박수근·이중섭 등 45명 93점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미술관 홈페이지 예약후 관람

특유의 화갈색톤 화면이 인상적인 박수근의 작품들, 민중미술의 대표주자 신학철의 '한국근현대사', 어린이가 그린 듯한 장욱진의 작품.

한국근현대미술의 대표작을 만나는 전시는 흥미롭다. 광주시립미술관(27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은 한국미술의 '다양한 표정'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경험이다.

지난해 4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283점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당시 김환기·이중섭·오지호·이응노·임진순 등 5명 작가 작품 30점을 기증받았고, '아름다운 유산-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선보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리움미술관 개관식 축사에서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의 첫 지역 순회전이다. 미술관 인근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컬렉션 중 국보와 보물 등 옛 미술품을 만나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기획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50점), 대구미술관(7점), 전남도립미술관(6점) 광주시립미술관(30점)이 소장하고 있는 이번컬렉션 93점이 나왔다. 참여 작가는 이중섭·박수근·김환기 등 45명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의 흐름과 가치를 조명



박수근 작 '세여인'

하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한국미술사의 대표작을 통해 서양화의 도입으로 변화된 한국 미술계에서 출발, 20세기 후반 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미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미술사의 큰 흐름에 따라 4개 섹션으로 나눠 구성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계승과 수용' 섹션에서는 관념산수와 현실을 반영한 화풍이 어우러졌던 전통 수묵화 분야와 서양화의 도입, 일본 유학의 확대로 변화된 서양미술계의 흐름을 살핀다. 허백련·김은호·이상범·변관식 등의 작품과 함께 오지호·이인성·구본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 뿐 아니라 작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화의 변용, 혁신' 섹션에서는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준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화사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천경자의 '만선'과 문자추상, '군상 시리즈'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응노, 한국의 무속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박생광의 작품이 눈

길을 끈다. '변혁의 시대, 새로운 모색' 섹션은 식민시대의 종결, 한국 전쟁, 분단 등 역사를 관통하며 시대의 아픔을 묘사한 작품과 희망을 표현한 그림을 만난다. 쓸쓸함이 느껴지는 박수근의 작품,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장욱진의 그림, 이중섭의 작품이 눈에 띈다. 한국민중미술의 대표작 신학철의 작품과 강요배의 '역새'도 인상적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피는 '추상미술과 다양성의 확장' 섹션도 눈길을 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환기를 필두로, 화사한 색감과 조형성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은 허인두, 대표작 '산' 시리즈의 다양한 변용을 보여주는 유영국, 한지를 주제로 작업하는 전광영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후 관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8차례, 시간당 120명씩 입장 가능.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묵향 '사랑을 그리다' 이영란 개인전, 3~9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묵향(墨香)의 세계를 만나다.' 문인화가 이정(雅亭) 이영란 개인전이 3일부터 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오픈행사 4일 오후 5시.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움트고 자라는 생명들의 경이로운 모습, 언제나 위안을 줬던 자연 풍광을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자연스러운 번짐과 붓터치가 만들어낸 담백하고 소박한 화면은 은은한 매력을 전한다.

함박눈 쏟아지는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추억, 구불구불 이어지는 논밭길 저 멀리로 일나갔다 돌아오는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던 기억 등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유년의 풍경들은 여백의 미와 먹의 농담이 어우러진 붓질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천바람이 불면 당신이 먼 데서 날 보고 있다는 기다림으로 나는 높은 언덕에 하얗게 피어날다' 시인 김용택의 작품 '들국화'의 한 구절과 어우러진 노란 국화 작품은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긴다.

정암 이병오(문인화), 금조 정광주(서예) 선생을 사사한 이 작가는 전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2016)을 수



'어머니를 기다리며'

상했으며 어등미술대전 대상, 전국소치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개인전은 어등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에 이어 두번째다. 이 작가는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광주시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추천 작가이며 광주전남문인화협회, 정목회, 장조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슬라브민족의 위대한 꿈, 상트페테르부르크' 28일 광주공연마루

광주문화예술회 기획 프로그램 '11시 음악산책'이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코자 풍파를 겪었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노래하며 막을 내린다. 공연 '슬라브민족의 위대한 꿈, 상트페테르부르크'가 28일 오전 11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김이곤의 해설과 함께 첼리스트 김인하, 장혜리, 박지은, 최정음, 고영주가 연주한다.

1부 '위대한 발견의 시작', 2부 '불가강의 배그는 인부들', 3부 '러시아의 대문호들', 4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후예들'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슬라브 민족의 꿈 드보르작 작품인 '슬라브 무곡'을 들려주고 2부에서는 '백학', 알라 푸가초바

의 '백만송이 장미'를 선보인다.

3부 '러시아의 대문호'에서는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를 만날 수 있다. 보로딘의 오페라 '이 고르 공' 중 '플로베츠인의 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 중 '왕비의 비행'을 연주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현악 4중주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와 '호두까기 인형' 중 '행진곡', '꽃의 왈츠'를 선보인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1일은 유료회원, 2일은 일반 회원 순서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김인하



장혜리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1월호

예향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전통증류주 새바람 '화요'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부동산과 주택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획일화된 아파트를 벗어나 자신만의 집 철학을 담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1월호는 '살고 싶은 내 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를 주제로 준비했다.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축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나주·장성에 '살고 싶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축주의 이야기, 입태형 건축사의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예향'이 만난 11월 초대석의 주인공은 전통 증류주 '화요' 돌풍의 주역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05년 고급증류주 '화요' (火堯)를 출시해 전통주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출시 당시만 해도 이단아 취급을 받았으나 '프리미엄 소주'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다. 도자기와 음식, 술 등 한국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식문화 전문기업을 이끌고 있는 조 회장의 식문화 철학과 향후 비전에 대해 들었다.

'클릭, 문화현장'에서는 개막 한달째를 맞은 '조르주 루오' 전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달 광주일보와 전남도립미술관이 공동 개최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은 연일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내년 1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루오의 유화·판화 200여 점 등 불멸의 명작이 선보인다. 국내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루오전의 모든 것을 소

개한다. 문화도시 광주의 곳곳을 소개하는 '광주 한바퀴' 마지막은 광주관광 캐릭터인 '오매나'와 함께한다. 머리 위에 빨강, 초록, 노랑 삼색 안테나를 휘날리며 광주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귀여운 오매나는 광주 문화관광 브랜드인 '오매광주'의 캐릭터다. 오매나를 만나고 싶다면 광주 여행이 시작되는 곳, 전일빌딩 245 남도관광센터내 '오매나 하우스'로 가면 된다. 이외에 복합문화공간 '미로센터'와 '김빛과', 최근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백운동 스트리트 푸드존'으로 안내한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미로)'는 시간여행자가 되어 100년 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걷는다. '목포의 눈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음악을 접하고 목포 다방문화를 이끌어낸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이용됐던 옛 '밀물다방'을 추억해본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고하도에 들어가 해안 산책로를 따라 트레킹도 해본다. '예향'(藝響), '미식 도시',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목포의 매력을 찾아 나선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철의 도시' 정체성을 다양한 조형물로 꽃피워낸 포항의 곳곳을 소개하고 '해외문화기행'은 자연과 예술의 환상 조합 '북유럽의 베네치아'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한다. 세 가지 테마로 광주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형 광주시티투어버스, K리그 2022시즌 우승을 이끈 광주FC 이정호 감독과의 인터뷰도 준비했다. 이외에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가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장애인-비장애인 ART 광주국제교류전'

2~17일 드영미술관...한·중·일 작가 70여명 참여

2014년 창립 이후 국제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박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 '미술동행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Open&Close'를 주제로 열린 첫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시대의 흐름', '감성과 열정', '바람의 숨결' 등의 주제로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왔다. 8번째를 맞는 올해 전시에는 중국 작가들이 새롭게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한·중·일 ART 광주국제교류전'이 2일부터 17일까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열린다. 오픈행사 2일 오후 5시~6시 30분.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역사 문제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모두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참여작가들은 청각, 시각, 지체 등 장애를 갖고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구고 있다.

한국에서는 광주·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50명의 작가가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일본에서는 미치오 야기, 마사미 하야시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가을의 하쿠비산소',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비전'



박진 작 '꿈속의 꽃향'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중국에서는 송민, 짜오 쓰웨이 등 9명의 작가가 '예쁜 동산'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박진 회장은 "정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면 기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작업에 몰두할 때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작품에 매진해온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